

<b>새은혜 교회</b> <a href="http://ngrace.org">http://ngrace.org</a>	
<b>분류</b>	심야 기도회
<b>제목</b>	<b>최고의 기도제목</b>
<b>성경</b>	<b>마태복음 6 : 9 - 10</b>
<b>일시/장소</b>	2023년 01월 13일 <b>금요일</b> / 새은혜 교회
<b>강사</b>	한병철 목사 (녹취 : 이요셉 렘넌트)

■ **마태복음 6 : 9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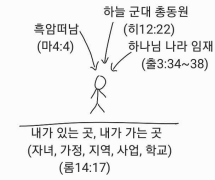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약**

**1. 예수님이 주신 기도제목**

- (1) 마6:9-10  
- 나라. 임하게
- (2) 마6:33  
-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 (3) 막1:15, 행1:3, 행19:8

**2. 최고의 기도제목**



-기도제목-

- 1.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 2. 중직자 신년 하례회
- 3. 신년 재직 세미나 (2/5)
- 4. 코로나 투병 중이신 분들 - 백미라 권사님, 박은혜 권사님, 박영권 성도님
- 5. 환우들 - 윤덕만 목사님

**녹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심야 기도회로 부르셔서 기도의 용사들이 언약 잡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은 “최고의 기도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기도해요. 또 교회 안에 와서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냐?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사탄에게도 놀리고 잡히고 종노릇 하고 우리가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

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나의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주세요. 우리 사업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겠어요. 우리의 직장과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지금 사탄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주 예수가 전파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빼앗겨버린 영적인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 아무것도 마음만 갖고 안 되잖아요. 돈 갖고 안 되잖아요. 내 달란트만 갖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기로 약속하신 헤브리와워 (Heavenly Power), 영적인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 자, 그러면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것은 다르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어려운 건 없죠. 첫째로 가서 보면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그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요? 그의 나라죠. 나라가 임하게. 이게 기도제목이에요.

제가 지금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범죄하기 이전에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탄의 손에 넘어가버린 것입니다. 에덴의 기쁨도 사라지고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속에 흑암, 사탄이 지배하면서 사탄이 통치하는 흑암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 빼앗겨버린 이 사탄의 나라의 영적인 영토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신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이 땅과 이 지금 이 영혼들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사탄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주인공으로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뭐 의식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거 기도할 거 없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야. 그건. 그거 기도하지 마. 기도할 것 없어.” 하나님이 내 신발이 없으면 신발 없는 줄 알고, 오늘 또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우산 받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공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비 오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소리 내면서 찬송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는데 신발 바닥이 앞에 가 이렇게 밟 달라고 입이 벌려져 있더라고요. 그럼 누가 알아요. 그 신발 벌어진지 딱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먼저라고 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여기 가서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 복음의 주인공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 말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 지금 왔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그러니까 기도제목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40일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감람원에서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왔다니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증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적인 영토들을, 영혼들을 점 점 점 점 찾아와야 됩니다. 그게 세계 복음 확장이에요.

오늘 우리 예전에 우리 저기 침례 신학 동기들이 모임이 있는데 제가 1994년도인가요? 필리핀을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이제 갔던 그 선교사님 소개로 그 지역을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한 2번 3번 갔나요. 그 뒤에.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지역에 완전히 쓰레기 더미에서 막 주워서 먹고 사는 아이들. 그런 거 보면서 거기 선교한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소식이 있는데요. 진짜 자꾸 눈이 밝히는 거요. 이게 이제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필리핀에서 그렇게 죽었던 말입니다. 그래 말이야. 그런데 참 이제 그분을 보면 그냥 막 모든 안주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 위험한 그곳에 가서 선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선교를 하

셨는데 참 귀한 분인데 또 소천을 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무겁고 그 자녀들 사모님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는 목을 내놓는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리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두란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권면하고 강론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을 갖다가 강론하고 권면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입니다.

▶ 오늘 밤에 기도 제목이 딱 나왔죠. 그래서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있는 그 곳에서. 내가 지금 가는 곳.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들이 진짜 언약 잡고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요. 이제 성막, 회막, 장막을 가지고 가서 막 옮겨 다니잖아요. 그런데 회막이 딱 들어갔는데요. 그 회막,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있는 곳 가는 곳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 군대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가니까. 하나님을 심부름 할 천사가 군대가 총동원돼요. 하늘 군대가 총동원. 얼마나 총동원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천만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는 그 현장 내가 만나는 그곳에 이 흑암이 떠나가요.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도망가게 돼 있죠. 왜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흑암이 왔다가 흑암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도망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니까? 답 나왔어요.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흑암이 떠나가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제목이라니까요. 기도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나의 자녀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내 지역 속에 사업 터 속에 그리고 내 학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후

대에게 불신자 대상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와 평강과.” 그냥 하나님 나라 입어보면 편안해요. 문제가 있는데 편안해요. “평강과 희락이라.” 기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거 참 희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어져서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잖아요. 괜히 막 웃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찌고 그러잖아요. 막 자연을 바라봐도 자연이 그렇게 신비하고 모든 것이 다 이쁘게 보이고 사람도 이쁘게 보이고. 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변해요. 변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다가니까요. 참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김종찬 씨가 “토요일은 밤이 좋아.” 라는 노래로 유명한 사람인데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도가 났어요. 감옥 갔어요. 감옥 갔는데 마침 거기서 성경 공부하려고 성경책 하나 들고 갔는데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간수쟁이하고 성경 공부 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간수가 옆에서 막 찬양을 불러줬다고 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김 목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난 것.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말씀 없으면 어떻게 살았어요. 못 살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말씀 없이 어떻게 사느냐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 딱 붙잡고 거기 내비게이션이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말씀 따라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없네.”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잖아요. 그러게 마음이 안정감이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기도 제목,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뭐니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기도 제목을 딱 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 가정, 자녀, 지역, 사업, 학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총동원되니까 천군천사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와서 흑암을 다 꺾어버리고

악한 영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다. 이 말이예요.

▶ 자,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넣어서 해도 돼요. 우리 중직자 우리 신년 하례회가 이번에 못하고 다음번에 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29일 정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절 지나고, 코로나가 우리 중직자분들이 좀 걸려서 이렇게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 좀 더 하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년 재직 세미나 우리 모든 미래의 중직자들도 우리 렘너트들도 참여하실 분 다 참여해서 2월 5일입니다.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김진열 장로님, 정은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와 싸우는 분이 있어요. 우리 백미라 권사님. 우리 박은혜 권사님. 우리 박용권 성도님. 건강을 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유증이 없이 빨리 지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놓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 놓고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 남부 시찰에 지금 담도암. 이제 17일에 입원해서 22일에 수술한다고 합니다. 우리 윤덕만 목사님. 좀 계속 생각날 때마다 수술을 잘 되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슬이, 서미라 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이 언약잡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b>새은혜교회 방송선교부 <a href="http://ngrace.org">http://ngrace.org</a></b>
부 장: 김군대 안수집사
후원계좌: 농협은행 302-7303-8128-11(예금주: 한병철)